

[TV]

황토 빛 길 가로질러 60년대 우리의 모습

한국영화특선 '저 언덕을 넘어서' (EBS·밤 11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날 날 없는' 가족의 변천사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시대를 초월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작품이다. 빨강, 파랑, 노랑 등 원색적인 의상을 입은 등장인물들이 황토 빛 길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에는 묘한 정서적 울림이 있다. 그런 색깔로 무 조연 60년대 후반의 모습이 아련하다.



아버지는 부족한 셋째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대가업 전무로 자리 잡은 장남, 관점사가 되려고 고시공부 중인 차남은 아버지 회합에 나타나지도 않는 터라, 정작 회합원은 셋째 아들이 품앗이하고 송아지 팔아낸 돈으로 치르게 된다.

TV - 하이라이트

고대수 궁녀 될 수 있을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MBC·오전 10시50분)은 1504년 조선. 궁에서는 궁녀를 뽑기 위한 심사가 한창이었다. 많은 처녀들이

다. 또 새 앨범으로 돌아온 가수 별, 10년지기 개그콤비 강성범·심현섭, 댄스가수로 변신한 청담동 호루라기 이진성을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자.

이준, 교지 표지 모델 추천

반올림#3(KBS2·오전 8시55분)=모든 면에서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으며 풀이 죽은 이준에게 답답한 꿈을 일찍 접할 수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위로하지만 전혀 위트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민하는 이준을 보던 율은 시인과 함께 학교 교지에 실을 표지 모델을 선별하는 데에 이준을 추천한다.

최고의 알요리 총 출동

결정! 대 맞(SBS·오전 10시50분)=세상의 모든 알들이 모여 맛을 뽐낸다. 크기장, 타조알은 프라이로! 인기장, 달걀은 토스트로, 가격장, 캐비어는 카나페로! 최고의 알요리들이 총출동한다. 또 본격대결 '간장계장 VS 꽃게찜'에서 간장계장이 짜다는 편견은 버려라. 알이 짝차 고소함이 두 배, 간장계장! 삶은 달걀지만 알은 고소하고 양념은 매콤! 꽃게찜과 간장계장을 비교한다.

'크릭 데이빗' 첫 내한 공연



'크릭 데이빗' 콘서트 (Mnet·오후 6시30분)=두 차례의 내한 프로모션에서 가진 쇼 케이스 무대로 국내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확인한 영국 R&B계의 황태자 크릭 데이빗, 색시하고도 감각적인 그의 모습을 눈과 귀로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첫 내한공연이 펼쳐진다. 스타링과 함께 했던 화제작 'Rise&Fall', 감각적 투스텝 사운드를 선보인 'Fill Me In'과 '7 Days' 등 무대를 통해 만나본다.

흑인 최초 수석 잠수부의 실화

맨 오브 오너(채널 CGV·오후 3시40분)= 할리우드 언기과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쿠바 구딩 주니어가 주연한 작품 '맨 오브 오너'는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 흑인으로서의 최초로 미 해군의 수석 잠수부가 된 칼 브레이셔의 실화를 그린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이다. 캔터키주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난 칼 브레이셔(쿠바 구딩 주니어)는 해군의 최고 다이버가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다.

케이블·위성TV 28일

Table with 12 columns: YTN, 시네마 TV, 카툰 네트웍, 코미디TV, Xports, 퀴니, GTV, 환경TV, EBS1, KBS KOREA, MBC MOVIES, XTM, SBS 드라마, SBS 스포츠, MBC Drama.net, SBS 스포츠, KBS 드라마, SBS 스포츠, MBC Drama.net, SBS 스포츠, KBS 드라마, SBS 스포츠, KBC, EBS, and others. Each column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